

농어촌公, 충북 배수펌프장 사전 예방 정비 나서

내년 재해예방 기여할 것

성지연 기자 wldus2916@gmail.com

기사입력 2024.11.12 15:40:49 최종수정 2024.11.12 15:40:49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가 배수펌프장 사전예방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최현수)는 배수펌프장 사전 예방정비를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배수펌프장 사전 예방정비는 예기치 못한 농업용 배수펌프 고장에 따른 인명사고 발생, 농작물 침수 등 국가적 손실 최소화와 선제적 침수 예방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배수장 예비정비를 통한 고장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고, 펌프 고장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중점관리 배수장을 대상으로 정비·보수를 실시중이다.

내년 재해대비를 위해 배수시설 정비·보수를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기습적인 극한 호우시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현수 충북지역본부장은 "미래의 기상 변화에 대비해 배수장의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성에 중점을 두어 펌프 고장이나 비상 상황에도 배수 기능 유지 및 점검·정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시설의 신뢰성을 높이고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Copyright @ 충북일보 & inews365.com
